

# 공연 3일전 집합금지명령 받은 '미스터트롯 콘서트'

### 이미 3차례 미뤄...또 한 번 연기될 가능성 커

### '팬텀싱어3 콘서트' 공연 취소...환불 진행중

'내일은 미스터트롯' 대국민 감사콘서트 서울 공연이 또 한 번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 '미스터트롯' 팬들과 공연계를 중심으로 송과구청이 '미스터트롯' 서울 콘서트를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서 '대규모 공연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21일 송과구청은 대규모 공연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를 내고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방지 차원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내 KSPOD(체조경기장)과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릴 대규모(5000석 이상) 공연과 관련해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이날 낮 12시부터 발생한 집합금지 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송과구청에 따르면 5000석 이상 수용 가능한 올림픽공원 KSPOD(1만5000석 규모)과 핸드볼경기장(5000석 규모)에서는 21일 낮 12시부터 수용 인원에 관계없이 '집합'이 '금지'된다.

이로 인해 공연업체는 또 한 번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달 31일과 8월1일 이틀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던 '팬텀싱어3 콘서트' 서울 공연은 취소됐고, 현재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호중도 당초 오는 8월16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D에서 단독 팬미팅 '우리家 처음으로'를 개최하려 했지만, 집합금지 명령으로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 중에서도 공연계와 팬들의 이목은 오는 24일 시작해 8월9일까지 총 15회로 계

획하고 있던 '미스터트롯' 서울 공연에 쏠리고 있다.

'미스터트롯' 콘서트는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이미 세 차례 공연을 미뤘다.

서울 공연은 당초 4월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5월로 한 차례 미뤄졌고, 이후에도 사태는 나아지지 않아 6월과 7월로 각각 연기됐다. 그리고 이번 역시 취소 및 연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송과구청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규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미스터트롯' 콘서트 측에 이 명령을 전달했다.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과정을 거치기엔 기간이 촉박하다.

'미스터트롯' 콘서트 측이 대규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전달받은 것은 서울 공연을 시작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온라인 공연으로 전환하기에도 업무 처리를 할 시간이 사실상 부족하다. 현재 상황이라면 '미스터트롯' 서울 콘서트는 결국 또 한 번의 연기 혹은 취소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행정제에 대한 비판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송과구청은 이번 '대규모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공고하며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가장 높은 '심각' 단계를 유지 중이고 최근 들어 5일 내 9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우리 구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송과구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 대해선 이의가 없다. 하지만 문제는 '시점'이

다. 송과구청은 최근 구내 확진자가 늘며 대규모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내렸으며 '심각' 단계도 언급했다.

그러나 정부가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수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 것은 이미 지난 2월22일의 일이며, 이 때부터 '심각' 단계는 유지되고 있다.

송과구청이 애초부터 '심각' 단계에 집중했다면, '미스터트롯' 공연 자체를 아예 허락했으면 안됐다.

하지만 그간 연기됐던 공연을 '미스터트롯' 콘서트 측이 7월24일부터 8월9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KSPOD에서 열겠다고 지난 6월 말에 공식 발표했다. 송과구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미스터트롯' 콘서트 측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물론 이 때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심각' 단계였다.

그러다 공연을 불과 사흘 앞두고 '대규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 이번 콘서트를 애타게 기다렸던 팬들은 물론, 공연을 준비했던 스태프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애매한 기준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송과구청은 이번에 5000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을 열 수 있는 KSPOD와 핸드볼경기장과 관련,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좌석 간 거리두기와 방역에 심혈을 기울여도 공연장이 크면 콘서트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스터트롯' 콘서트 측은 총 7만8000명의 관객과 함께 할 이번 서울 공연과 관련, 공연 회수를 총 15회를 늘려 회당 관객을 5200명으로 제한했다.

공연이 열리는 KSPOD이 1만5000석 규모의 공연장임을 고려하면 좌석 간 거리두기에도 나름대로 신경을 쓴 셈이다. 하지만 KSPOD은 5000석 이상의 대규모 체육시설이자 공연장이기에, 송과구청의 이번 행정명령으로 '미스터트롯' 서울 콘서트는 또 한 번 연기될 가능성이

# 내일은 미스터트롯

## 대국민 감사콘서트 서울

7.24(금) ~ 8.9(일) 금 7:30PM 토,일 2PM,7PM  
KSPD DOME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주최 KOSUN 제작 WAVE PLAY 협찬 롯데백화점

커졌다. 송과구 내에 있는 1230석 규모의 공연장인 사뮈데씨어터에선 현재 한 뮤지컬이 절찬리에 공연 중이다.

1000석 이상을 보유한 곳도 대규모 공연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송과구청은 대규모 공연장의 기준을 5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곳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대해서도 '미스터트롯' 팬들 및 공연 관계자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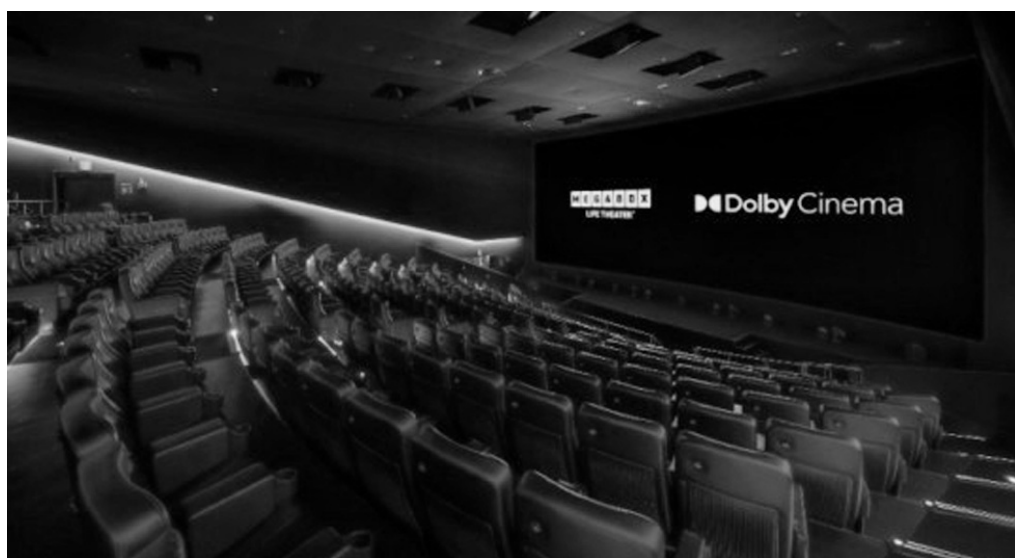
'미스터트롯' 콘서트 측은 지난 21일까지 4일째 서울 공연과 관련해 무대 세팅

등을 진행했고, 당초 22일부터 리허설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으로부터 집합금지 명령을 전달 받은 뒤에는 공연 연기 여부 등에 대해 논의의 중이었다.

이번 사안과 관련, 한 공연계 관계자는 "공연 시설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것도 큰 비용이 든다"라며 "이에 대관을 해주지 않거나, 1~2주 전에만 집합금지 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도 피해액이 크게 줄었을 것"이라며 송과구청의 이번 행정명령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 메가박스 "코로나19 속 돌비 시네마 개관...영화계 활력 기대"

### 공식 개관 알리는 프리뷰 데이가 개최



메가박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돌비 시네마를 개관하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는 '돌비 시네마' 공식 개관을 알리

는 프리뷰 데이가 개최됐다.

이날 자리에는 김진선 메가박스 대표를 비롯해 조철웅 돌비 코리아 마케팅 이사, 이미지 돌비 시네마 사업 담당, 김현수 메가박스 멀티플렉스본부장, 임정훈 메가박스 기

술담당 부장이 참석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현수 메가박스 멀티플렉스본부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영화관이 다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라며 "저희가 특별관을 준비한 건 작년, 그리고 그 이전부터 고민을 했었다."

메가박스에서 다양한 체제를 고객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본연의 목적으로, 코로나19 시대에 영화관이 위축되기 보다 새로운 시도를 도입해 활력을 불어넣으려 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어 "영화계가 내년 내후년 정상화의 길을 갈 것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다양한 체제를 선사할 기회를 만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돌비 시네마 확장과 더불어 다른 형태 특별관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메가박스는 이날 한국 최초로 돌비 시네마를 개관한다.

돌비 시네마는 전 세계적으로 13개 국가에서 250개 이상의 영화관을 운영하며 쌓아온 돌비의 기술과 노하우가 집약된 차세대 프리미엄 영화관이다.

## 드림콘서트, 온라인서 열린다

### 25·26일 오후 9시 유튜브·네이버 등서 유료 생중계

전 세계 케이팝(K-팝) 팬들을 위해 대표적인 한류 콘서트인 '드림콘서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방한이 막힌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린다.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5일과 26일 오후 9시부터 '제26회 드림콘서트'를 SBS 프리즘타워에서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콘서트는 유튜브 및 네이버 VLIVE에서 생방송으로 유료 시청할 수 있다.

이번 제26회 드림콘서트는 관광공사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특별 후원하며,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협력해 진행한다.

공사는 전 세계 K-팝 팬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콘서트 무대현장과 해외 오프라인 행사 현장 연결을 통해 한류 가수과 실시간 소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여기에 가상현실(VR), 버추얼스튜디오 등 최신 기술을 더해 콘서트의 현장감과 함께, 한국 관광매력까지 생생하게 전달한다.

공사 3개 주요 해외지사에서는 오프라인 홍보를 펼친다.

베트남에선 25일(현지시간 18시) 하노이에 위치한 베트남국립현대 콘서트홀에서 현지 엑소(EXO), 레드벨벳(Red Velvet) 팬클럽 회원 등 K-팝 팬 1000여 명이 함께 대형 스크린을 통해 콘서트를 관람한다.

하노이지사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전 홍보이벤트 및 K-팝 팬클럽 운영진을 통해 팬클럽 회원들을 초청하고, 콘서트를 입구에 한국관광 홍보부스 및 한류스타 포토존, 한복 체험존 등 한국문화 관광 전시체험 공간을 설치해 한국을 적극 홍보한다.

## 김호중 측 "편파·악의적 기사 게재 기자에 2억 손배소"

### "앞으로도 명예훼손·허위보도 등 강경 법적 조치 할 것"

가수 김호중이 한 매체 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내고 "당사는 모 기자에게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는 "지난 6월 18일과 19일, 모 기자는 김호중이 전 매니저라 주장하는 권모씨와 관련해 여러 사실을 부인한 것에 대해 권모씨의 일방적인 입장만 담아 편파적인 기사를 게재했다. 25일에는 소속 매체 및 한 유튜브 채널

에서 김호중과 권모씨의 분쟁에 대해 제차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7월2일에는 권씨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김호중의 군 입대 연기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악의적인 추측성 의혹을 보도했으며, 8일에는 김호중의 심경을 담은 글을 게재하며 자신만의 편파적인 생각을 그대로 드러낸 기사를 게재했다. 14일에는 김호중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차 제기하면서 김호중의 인터뷰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했으며, 17일에도

사실 확인 없이 김호중의 입영 예정일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김호중 측은 "모 기자에게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으며, 계속해서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허위보도로 김호중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건 물론, 예정된 일정 등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당사는 김호중과 김호중을 사랑해주는 팬 분들을 보호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명예훼손과 허위보도, 악플 등에 대해 강경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국제수사' 김상호 "필리핀서 다들 알아봐"

### "큰 인기 '이민호' 덕"

배우 김상호가 필리핀 현지 인기에 대해 말했다.

22일 오전 10시 영화 '국제수사' (감독 김봉한) 온라인 제작보고회가 열려 광도원, 김대명, 김희원, 김상호, 김봉한 감독이 참석했다.

이날 김상호는 필리핀 현지에서 큰 인기를 구가한 것을 언급하자 활짝 웃으며 "이민호와 함께 '시티헌터' 작품을 했는데 그 작품이 필리핀에서 인기가 많았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배우들 다 알더라. 우리 드라마, 영화의 힘이 대단하구나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광도원은 "상호형님 대단했다"고 했고, 김대명 역시 "한식당을 가려고 쇼필름을 갖는데 3m에 한변씩은 다들 알아 보실 정도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수사'는 난생 처음 떠난 해외여행에서 글로벌 범죄에 휘말린 친구석 강력팀 형사 병수(광도원 분)의 현지 수사극이다.

춘구석 형사 병수 역의 광도원, 병수의 수사 파트너가 된 현지 관광가이드 만철 역의 김대명, 필리핀 범죄 조직의 정체불명 킬러 패트릭을 맡은 김희원, 병수의 웨스 같은 추다고우 용배를 맡은 김상호가 출연한다.

오는 8월 개봉 예정.